

‘집값 상승 열차’ GTX... 제외된 지역 “연장 계속 추진”

시흥시 “C노선 오이도 역까지 연장 위해 행정력 총동원”

국토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계획에 포함된 지역 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집값 상승 열차’ GTX 로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반면 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지역에선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는 지역 내 연장운행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최근 GTX-C노선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경기도 수원시 금정에서 양주시 덕정을 잇는 74.8km 구간이다. 국토부가 기본계획에 창동·광운대·정량리 등 열 곳을 정차역에 포함했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왕십리역과 인덕원역의 추가설치를 제안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GTX-C노선의 사업 입찰 공고를 내면서

최대 세 곳의 정차역을 추가할 수 있게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일대 집값이 치솟고 있다. 인덕원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자리한 경기 의왕시 포인동의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르 전용면적 84.98㎡ 호실의 호가는 20억원까지 올랐다.

이 아파트는 2019년 12월 입주를 시작했다. 해당 면적의 분양가는 5억2800만~5억6800만원이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10억~12억원에서 거래가 이뤄졌다. 직전 실거래는 이달 6일로 16억3000만원(25층)에 거래된 바 있다. 시세 상승이 가파르다.

푸르지오 엘센트르보다 인덕원역에 가까운 ‘인덕원마을 삼성아파트’도 비슷하다. 구축 아파트(1998년 12월 준공)지만 역과의 접근성이 좋아(도보 5분) 지난달 저층(1층) 전용 106㎡가 9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최근 호가가 수천만원씩 오르고 매물이 줄어

들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 상록수역, 의왕역 인근에선 실망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주민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엔 안산에도 GTX-C노선이 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상황이다.

이에 지자체들도 움직이고 있다. 시흥시는 22일 “GTX-C노선의 오이도역 연장운행을 위해 앞으로도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수도권 서남부 중심지역인 시흥, 안산지역은 시하스마트허브 등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곳으로, 주요 중소전력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역급행철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계획 노선 중 군포 금정역에서 일부 열차를 4호선을 이용해 안산 상록수역과 중앙역 등을 거쳐 오이도역까지 운행해야 하며, 경제성도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시는 같은 내용의 노선 연장을 요구 중



소사업 사업 제안서에 이 같은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산시는 국토부의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직후 “노선 등 사업 확정을 위한 협상은 이제 시작이다”며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C노선이 반드시 안산까지 연장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장 운행을 위해 필요한 2000여억원의 추가 사업비를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까지 밝힌 윤화섭 안산시장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안산시민의 염원인 GTX-C노선의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역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의왕역이 추가될 수는 있지만 상록수역, 오이도역 등까지 C노선이 연장되기는 어렵다”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지자체장들이 지속적으로 연장을 요구하면 사업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서울 인접한 한강 조망권 오피스텔

더 지엘

현대건설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고양역에서 200m 떨어진 지하 11·12블록 일원에 지어질 프리미엄 오피스텔 ‘더 지엘’의 청약접수를 이달 23일 실시한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23층, 전용면적 29~60㎡, 총 420실 규모로 구성된다. 특히 3층은 테라스 특화 설계 타입(일부 제외)이 계획됐고 한강 조망(일부 제외)이 가능하며 남향 위주(일부 제외)로 배치했다. 교통을 살펴보면 자유로와 강변북로가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며 원종-홍대선 덕은역(가칭)도 계획돼 있어 접근성이 좋아질 예정이다. 또 상암월드컵경기장, 디지털미디어시티, 홍대 상권 등도 가까워 생활인프라가 풍부하며 한강 수변공원, 상암근린공원 등 녹지시설도 잘 조성돼 있다. 단지는 청약통장 유무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가는 3억2391만~8억2422만원에 책정됐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425-94번지에 위치한다.

6월 23일-청약접수 / 6월 28일-당첨자 발표

非규제지역, 바다 조망 갖춰

강릉 영진 코아루 휴티스 디오션

금강중합건설이 ‘강릉 영진 코아루 휴티스 디오션’(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299-1번지 외 8필지)의 견본주택을 이달 25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9층, 3개 동, 전용면적 71~84㎡, 총 217가구 규모다. 단지는 4베이 위주 혁신평면과 전 가구에 팬트리와 드레스룸을 제공해 입주민의 편의를 높였고 바다 조망(일부)과 오대산 조망(일부)도 가능하다. 교통을 살펴보면 67번 국도와 북강릉IC를 통해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한편, 단지가 들어서는 강릉은 비규제 지역으로 세대주 및 주택 수와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며 대출 규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견본주택은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329-30번지에 위치한다.

6월 25일-견본주택 개관

문용균 기자

고객이 선호하는 스마트 아파트 브랜드 1위 e편한세상

비즈빅데이터연구소, 1분기 아파트 브랜드 평판 조사 발표

실거래가 기반 ‘거래지수’와 ‘스마트 소셜지수’ 합산해 산출 푸르지오, 아이파크, 래미안, 힐스테이트 순 선호도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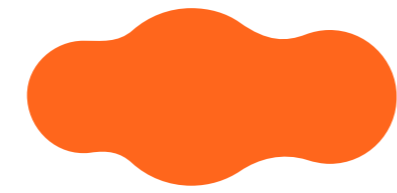
올해 1분기 고객이 선호하는 스마트 아파트 브랜드 1위는 ‘e편한세상’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비즈빅데이터연구소의 1분기 20개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DL이앤씨의 ‘e편한세상’이 ‘고객이 선호하는 스마트 아파트’ 지수 1만2739점을 받아 1위에 올랐다. DL이앤씨 e편한세상의 분야별 지수는 △퍼블리싱 3629 △상호작용 1604 △공감 4105 △거래 3399 등이다.

2위에 오른 대우건설의 푸르지오는 퍼블리싱 지수 2240, 상호작용 지수 934, 공감 지수 2421, 거래 지수 4122로

집계돼 통합지수 9716을 기록했다. 3위를 차지한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브랜드는 퍼블리싱 지수 1849, 상호작용 지수 1879, 공감 지수 2616, 거래 지수 2013으로 집계되면서 통합지수 8357를 기록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4위에 올랐다. 래미안 브랜드는 퍼블리싱 지수 2017, 상호작용 지수 2363, 공감 지수 2424, 거래 지수 1506으로 집계되면서 통합지수 8310을 기록했다. 5위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브랜드는 퍼블리싱 지수 2192, 상호작용 지수 1359, 공감 지수 2527, 거래 지수 2009로 집계되면서 통



e편한세상 지수 8087를 기록했다.

비즈빅데이터연구소는 합리적인 아파트 브랜드 평판 분석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래지수에 ‘스마트 소셜지수’를 합산해 지수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소셜지수는 퍼블리싱 지수와 상호작용 지수, 공감지수로 구성된다. 퍼블리싱 지수는 언론매체와 소셜미디어에 관련 콘텐츠 중 해당 브랜드의 기사나 포스팅 등이 얼마나 많이 게재되

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e편한세상(3629), 푸르지오(2240), 힐스테이트(2192), 래미안(2017), 아이파크(1849)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지수는 브랜드 콘텐츠에 대한 유저들의 피드백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측정한다. 더샵(3633)이 가장 높았고, 래미안(2363), 자이(2252), 하늘채(2044), 롯데캐슬(1893) 순이었다.

공감 지수는 브랜드 콘텐츠에 대해 유저들이 감성적으로 어느 정도 반응하는가를 측정했다. e편한세상이 4105로 가장 높고 아이파크(2616), 힐스테이트(2427), 래미안(2424), 푸르지오(2421)가 그 뒤를 따랐다.

거래 지수는 국토부가 공개하는 아파트 실거래를 분석해 브랜드 아파트 중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푸르지오(4122), e편한세상(3399), 자이(2657), 아이파크(2013), 힐스테이트(2009) 순이었다.



시간의 가치로 인생의 품격을 높이는 곳

롯데캐슬에게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당신의 눈부신 인생이 쌓인다는 것이기에 오늘도 롯데캐슬의 자부심과 품격은 어제보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